



# 한울림 교회

## 방송설교

KRB(FM87.7)  
토 6:30pm / 주일 6:30AM

단비 TV  
본방-토 9PM/재방 월 11AM

Youtube - 한울림TV

www.hpcny.org  
hulpcny@gmail.com

## 섬기는 사람들

전도사

차유미

목사

김원재, 양명철, 한성욱

오전 11시

교회소식

선교기도

찬양\*

기도인도

봉헌\*

말씀교독

특별찬양

말씀선포

찬양과결단\*

축도\*

## 고난주일

예배 인도: 김원재목사

인도자

다같이

다같이

인도자

다같이

김원재목사

샤마임찬양대

설교자

다같이

인도자

이달의 선교사를 위한 기도

웬말인가 날 위하여(찬 143)

보혈

예수 피를 힘입어

보혈을 지나

만 가지 은혜를(찬 216장 4절)

사도행전 14:8-20

죽임 당하신 어린양

“헛된 일을 버리고”

십자가를 질 수 있나(찬 461)

\*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쪽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1.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2. 오늘은 고난주일이며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거룩한 한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3. 다음주일(4/4)은 부활절이며 성찬주일입니다. 각 가정에서도 빵과 포도음을 준비하셔서 성찬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성찬기가 안내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4. 부활절에 특별감사헌금이 있습니다. 드려지는 헌금의 50%는 이웃사랑과 선교에 사용됩니다.
5. 오늘(3/28) 주일예배를 마친 후 새예배당에 가서 “입당 준비 기도회”와 정리 및 청소가 있습니다. 가능한 분들은 모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밥과 물이 준비되었으니 예배가 끝난 후 1인당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6. 다니엘 금식기도가 오늘저녁(3/28)부터 4/3(토) 까지 진행됩니다. 안내지를 참고하셔서 모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7. 3/29(월)~4/3(토)에는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3일(월~수)은 비대면으로만, 3일(목~토)은 현장기도회와 비대면기도회를 병행합니다.
8. 차성원-차유미 성도 가정의 아들 재인이의 첫돌을 축하합니다. 그 가정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후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9. 한울림교회 예배당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공서와 전기공사의 사무처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공사의 안전과 일이 신속히 진행되어 속히 준공되어 입당하도록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10. 새벽기도회는 오전 5시 30분(월~토)에 Zoom을 통하여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단 토요일은 현장기도회와 영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Zoom ID: 3213210608 / PW: 0608

## 잔인한 4월이 아니라 부활의 달이 되도록

아시아인 혐오범죄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인 여성과 노인들을 향한 폭력적 공격은 아시아계 이민자들을 두렵게 합니다. 미국은 차별을 혐오하는 나라이지만, 역사 속에 늘 차별은 있어 왔습니다. 흑인에 대한 차별이 있었고,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있었고, 사회적 소외계층과 제도적 차별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차별은 악이라는 사회적 통념이 있었기에 하나씩 극복해왔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런 사회적 통념을 비웃는 범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아시아인 혐오와 그로인한 범죄가 현재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것이라 말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숨어있던 흉칙한 마음이 전면으로 드러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자기 방어를 하고, 무엇보다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당 건축이 거의 완료되어 마무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봄이 가기 전에 입당하기를 기대했지만, “봄은 왔건만 꽃은 피지 않는다”라는 쇠구처럼 봄은 왔지만, 입당의 소식은 아직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속히 준공 허가가 나서 입당하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월 마지막 주일인 다음 주일(3/28) 예배 후에 준비된 간단한 식사를 하고, 가능한 모든 분들이 가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또한 간단한 청소와 정리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에 미리 시간을 내시고, 복장을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3/28)이면 사순절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4월이 되면 부활절(4/4)을 맞이합니다.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다니엘 금식기도”를 전교인이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배부되는 안내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난주간에 “특별새벽기도회”를 갖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하지만, 3일(월-수)은 비대면으로 3일(목-토)은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합니다. 특별히 줌으로 참석하는 비대면 참석자들이 모두 카메라를 켜고 하기로 권장합니다. 이것은 좀 더 준비된 마음으로 참여하자는 의미입니다.

T.S. 엘리엇의 시(황무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이 시의 영향인지 한국 사람들은 흔히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말합니다. 한국 역사 속에 제주 4.3사건, 4.19혁명, 4.16세월호 사건 등 무고한 피를 흘린 사건들이 이어지다보니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번 4월은 부활과 생명회복의 달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가 필요합니다.